



Exhibition: Total Contrast of Black and White

Nathan Harger Solo Exhibition

전시회: 흑과 백의 완벽한 대비
네이든 하저 개인전

이예진 기자 // By Lee Yejin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네이든 하저의 국내 첫 개인전이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린다. 네이든 하저는 미국이 낳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예 사진작가다. 이번 전시를 통해 흑백의 대조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의 사진 작품을 국내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작품은 일상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탄생됐다. 그의 사진 속 피사체는 고속도로, 자동차, 공장, 비행기 등 산업화의 산물인 도시기반시설물이다. 혼한 도시 풍경 속 피사체는 짙은 흑색으로, 번잡한 배경은 눈부실 정도의 백색으로 표현된다. 강렬한 흑과 백의 명암 대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물이 지닌 기능적 역할은 감춘 채 예술적 조형미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번 개인전을 위해 방한하는 네이든 하저는 한국 여러 도시를 방문해 새 작업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형태 그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그의 예술적 감각을 통해 한국의 익숙한 풍경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여지길 기대해 본다.

Nathan Harger's first Korean solo exhibition will take place at Gallery K.O.N.G. from September 11th until October 10th. Nathan Harger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but is celebrated internationally for his photography. Through this exhibition, Harger invites us to appreciate the beauty that results from the heightened black and white contrast of his photographs.

Harger's new work encourages the viewer to see every day life in an extraordinary way. The subjects of his work include freeways, cars, factories, planes, and products of industrialization, such as urban infrastructure facilities. Common views of the city are outlined in black, and the background is a layer of blinding white. The strong contrast of the of the two emphasize the beauty and form of the shapes rather than the functional role of the facilities.

For this exhibition, Nathan Harger plans on traveling to many cities in Korea to get inspiration for his future work. He has a knack for turning bland, every day subjects and highlighting the previous unappreciated beauty of their aesthetics. I am looking forward to his fresh take on Korea's cityscape.

